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6〉

日 요코하마 도심 중심 상점가

사람중심 동선…모든 상가 1층은 보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10대에서 70대까지 일본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 평일 오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렸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로등과 질서정연했던 업무지역과는 달리 번잡한 옥외광고물 등이 눈길을 끈다.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 기자

◇모토마치=지난달 23일 찾은 요코하마의 모토마치(元町)는 마침 봄 세일 기간이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30~50대 주부들로 북적이는, 폭 10m도 안 되는 도로는 그 형태부터 독특했다. S형 차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보도 위는 바로 건물 2층이었다. 상인들이 1층 공간을 사람들이 걷는 길로 내놓은 것이다.

재일교포 김종철(54)씨는 "모토마치는 원래 그 폭이 5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차량 진입이 늘면서 주말에는 사람과 차량으로 뒤섞여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었다"며 "20여 년 전에 시와 상인들이 수 년 간 논의한 끝에 내놓은 안이 1층 공간을 보도로, 기존 도로를 차도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도라고 하더라고 차량은 오전 11시까지만 통행이 가능하다. 100여 개에 이르는 상점에 상품을 배분하거나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만 차도로 쓰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차도·보도 모두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것이다.

상점 구성은 철저히 중산층 여성 중심이다. 고가부터 중저가 의류에서 액세서리, 핸드백·지갑, 구두, 그릇, 공예품, 빵집 등까지 이어진 점포 앞에는 세일 폭을 알리는 가판대가 있어 걷는 이를 '유혹'하고 있었다. 가판대는 그 폭을 30~50cm로 해 걷는 데 불편 없이 배치하고, 상인모임에서는 중간 중간 골목길마다 경비원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시켰다.

경비원 기타무라(54)씨는 "세일 때는 인근 가와사키와 도쿄에서까지 여성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며 "차량을 모토마치 상점가 뒷길의 주차장으로 안내하며 가판대 배치를 돕는 것은 물론 인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람의 동선이었다. 모토마치 시작과 끝 지점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노선을 만들고, 차량은 철저하게 뒷길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중심가에는 사람들만 다니도록 했다.

주부들은 10일에 불과한 세일 기간을 위해 1년 동안 아끼고 절약해 모은 돈을 아낌 없이 쓰며,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듯했다.

◇차이나타운=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가진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은 모토마치와 인접거리에 있다. 모토마치뿐 아니라 신도심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구도심인 간나이지구의 중간에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을 걸어 나오면 자연스레 바다와 접해 있는 야마시타공원이 있고 다시 아카렌가창고 등 문화시설과도 만날 수 있다. 요코하마 해안가의 거대한 빌딩 숲과 문화시설이 거점이라면 과거 마차길인 바샤미치와 기찻길인 기샤미치는 연결통로가 되고, 차이나타운과 모토마치로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모토마치와는 달리 차이나타운은 연령·계층·국적을 초월한 '열린 공간'이었다. 만두와 면 요리 등 먹을거리를 주축으로 잡화점과 슈퍼마켓 등이 구성돼 있다.

질서정연했던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비교하면 혼잡과 무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큼지막한 간판에는 원조를 주장하는 점포주의 사진이 걸려 있고, 노점상들도 약간은 어지러이 널려 있어 조금은 정신 없다. 하지만 길바닥은 깨끗했고, 점심시간 음식점 앞에는 수 십명이 20~30m씩 길게 늘어서 있을 정도로 기본은 지켜지고 있었다. 평일 낮시간대인데도 세 갈래의 연장 700여m의 길은 시민, 관광객 등으로 꽉 차 걷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길거리 곳곳에서 선 채 만두와 국수를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이채로웠다.

한국인 관광객인 정모(47)씨는 "한 번쯤 가봐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해 왔는데 점포 수며, 유동인구 등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 삼국지의 영웅 관우 사당 앞에서 동료와 단체사진을 찍었다. 차이나타운과 모토마치는 차량을 곳곳에 설치된 외곽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상점가를 구성했으며, 점포 역시 사람의 동선을 고려해 배치하는 세심함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불법호객행위나 전단지 배포, 강제판매 등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했으며, 주변과 차별화되는 세일 폭과 이벤트 등으로 시민·외지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로 뒤덮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광주지역 상점가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요코하마 모토마치는 중산층 여성고객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가로, 지난달 22일 봄 세일기간을 맞아 30~50대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의류나 구두·지갑 등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점포주들이 상가의 1층 공간의 3m 정도를 뒤로 물러나 보도로 제공했다.

차량은 철저히 뒷길 주차장으로
불법호객·전단지 배포 자율단속
쇼핑~관광·문화시설 인파 연계

4200기 외국인 묘지…'개항장' 요코하마의 관광 명소

개항장이었던 요코하마에도 거대한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광주 양림동 선교사묘역처럼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외국인묘역은 모토마치 상가 뒤편 구릉지에 형성된 고급 단독주택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은 '항구가 보이는 언덕 공원', '이와사키(岩崎) 박물관' 등이 있다. '항구가 보이는 언덕 공원'에서는 멀리 하네다 공항에서 요코하마로 넘어오는 거대한 베이브릿지(연장 860m)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가깝게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형성된 거대한 건축물들을 조망할 수 있다. 이와사키 박물관은 개항 후 네덜란드 사람인 헤스트 씨가 운영한 최초의 서양식 극장 '게이티 극장(gaiety theater)'를 복원해 박물관과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시설로 사람을 불러모으기 보다는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 장소를 집적시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외국인 묘역에는 2만㎡의 면적에 40개국 출신의 4,200개 묘지가 자리하고 있다. 묘지 입구 쪽에 안내관이 있어 그 주변의 과거 사진과 변천사를 적은 도표, 간단한 유물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마침 이곳을 찾은 지난달 23일에는 이 묘역에서 그림을 그리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진노 요시에(神野好江·여·70) 할머니는 "노인 회화교실에서 숙제로 외국인묘지 그리기를 숙제로 내줘 1주일에 1번 찾고 있다"며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진노 할머니 외에도 묘역 주변에는 사진을 찍고 정리하는 시민과 외지인들 10여명이 묘역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회화교실에서 내 준 숙제를 하기 위해 요코하마 외국인묘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진노 요시에(여·70) 할머니.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뮤지컬 광화문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콥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일(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 매 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Daum 뮤지컬 광화문연가